

오락의 젊은 작가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장편소설





표지 그림: 전우진, 『The World of the World』 (2006, Oil on Canvas, 50 x 60 cm)

형상이 가진 이중적 의미에 대해 탐구한 작품 중 하나로써 결코오는 변화적으로 표현된 형상이지만 형상의 내재된 색형구조는 순수 추상에 대한 논리 구조를 가지는 그림이다. 이것은 이 세상이 수많은 개별적 사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질서와 균형을 위한 구조를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교사
안은영

펴
낸
모
모
작
자

오늘의 젊은 작가 09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장편소설

민음사

사랑해 젤리피시

가
라
만
보
고
지
라

장마철의 보충수업 기간, 학교에 들어서면 순간 신발장 냄새가 진했다. 짧은 방학은 무더위 속에 지나가 버렸고 보충이 시작되자 모두 우울한 얼굴이었지만 사복이 허용되었으므로 옷 입는 재미로 버티고들 있었다. 그러나 승권은 그마저도 전혀 흥미가 없는 편이었다. 연하늘색 핀 스트라이프 반셔츠에 면바지가 승권의 최선이었고, 승권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오직 하나였다.

혜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진학해 왔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릿속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해서 별명이 해파리인 여자애였다. 그나마 좀 귀여운 어감인 젤리피시

로 불려서 다행이지, 해파리 같은 여자애를 좋아하는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승권은 늘 머리가 아팠다. 이 단순하고 모난 데 없는 사랑스러운 생물은, 불행히도 다른 사람한테서도 가장 좋은 부분만을 발견하는 나머지 누가 고백만 해 오면 족족 다 사귀어 왔다. 승권은 언제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 벌써 2학년 1학기가 지나 버렸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마음먹자, 갑자기 웬 농구부 주장이 오늘 혜현에게 고백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혜현이라면 그놈한테서도 가장 긍정적이고 빛나는 어떤 부분을 찾아낼 게 뻔했다.

너한테 필요한 건 키만 크고 얼굴이 여드름 발인 농구부 주장이 아니야. 매일 아침 눈빛만 봐도 네가 매점의 서른여섯 가지 간식들 중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아는 나라고. 승권은 농구부 주장보다 먼저 혜현을 찾아야 했다. 농구부 애들이 저 질퍽한 운동장에 하트 모양으로 꽃을 초들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비나 와라. 비나 와 버려라.

1교시가 끝나자마자 과학실로 향했다. 분명히 과학실에 있을 것이다. 더위를 많이 타는 혜현은 과학실 돌바닥의 냉기를 좋아해서 먼지 나는 암막 커튼 아래에 늘어져 있는 습관이 있었다. 승권은 그 구석을 해파리 여름 서식지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다.

“조승권, 어디 가? 너 오늘 지각했지?”

답임인 한문이 불러 세웠지만 승권은 못 들은 척 걸음을 빨리했다. 다리를 저는 사람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다.

“성혜현.”

과학실 문을 열며 혜현을 불렀다. 어째서 성까지 붙여서 이렇게 딱딱하게밖에 부르지 못하는가. 혜현은 없었다. 벌써 늦었다. 10대 소년이 느끼기엔 다소 짙은 절망, 그 절망의 단내가 입안에 돌았다.

그때 뭔가 날카로운 것이 따끔, 목 뒤에 박혔다.

보건교사가 핀셋을 들고 정체불명의 가시 같은 것을 빼냈다.

“뭐예요?”

이럴 시간이 없는데, 승권은 마음이 급했다. 목을 감싸 쥐고 보건실로 오는 길에 농구부 1학년 애가 기타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건교사는 승권의 목 뒤에서 빼낸 것을 유심히 확인하며 입술을 약간 움직였는데, 승권에겐 언뜻 욕설처럼 읽혔다. 잘못 본 거겠지.

“상처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독성이 있을지 몰라. 벌써 주변부 색깔이 다른 게 염증이 생길 것 같아. 조퇴해서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 몇 반?”

“2학년 1반이요.”

“내가 너희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아뇨, 이따가 제가 허락받을게요. 혹시 허락 안 해 주시면 확인증 받으러 올게요.”

승권은 총알같이 보건실에서 튀어 나갔다. 뒤에서 보건

선생님이 뭔가 만류하는 듯 웅얼거렸지만, 가시인지 뭔지를 뻗으니 됐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유난히 귀찮았다.

보건교사 안은영은, 자잘한 일은 있어도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오늘까지는.

은영은 남학생의 목에서 뽑아낸, 동물성 물질을 내려다 보며 작게 끓는 소리를 냈다. 욕이 되다 만 소리였다. 학교라서 매번 삼킬 뿐, 사실 은영은 욕을 잘하는 편이었다. 학생이 놀랄까 봐 차마 말을 못했지만 그것은 어떤 알 수 없는 동물의 손톱, 비늘, 뼈 중 하나인 것 같았다. 그 애의 목덜미에 핏줄을 타고 독기가 번져 가는 걸 보았는데 얼마나 나쁜 게 들러붙은 건지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소독이라도 했어야 하나. 하지만 어차피 알코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니었다. 본체를 잡을 때까지 괜찮아야 할 텐데, 은영은 걱정스러웠다. 본체로부터 멀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다.